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21>

JCCT 2015-5-2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박인과*

Park In-kwa*

요약 본 연구는 시집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현대인에게 시집이 문학치료적 효과를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시집으로써 더욱 치료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시집으로 묶여있는 시들은 하나의 기승전결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 시들이 서로 앞뒤로 섞여 있더라도 독자의 취향에 따라 기승전결의 양식으로 독자의 인지 시스템에 시냅스 되기 때문이다. 시집은 문학치료적 전이로 구조화 되어있다. 이러한 전이의 구조는 동그라미로 현상된다. 이러한 전이적 구조 속에서 시적 내용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라면 독자에게 더욱 안위감과 흥미를 발화시켜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창작품을 가지고 문학치료적 서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문학의 치료적인 유희,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 기승전결, 양극성의 균형, 뉴런, 시냅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examine how poem causes effects of literary treatment for the contemporary people and how to improve therapeutic effect with poem by illustrating the process of therapeutic effect by poem. Each poem in the poetry book has a well-organized flow. While those poems are mixed, it can be synapsed into the cognitive system of readers by their taste in the form of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The poetry book is structured with the transition of literary treatment. Such transition structure is embodied in a circle. If poetic contents are positive and creative in such transitive structure, it gives more comfort and excitement to readers increasing therapeutic effec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gress literatherapy narrative with such creative works.

Key words : Therapeutic Amusement of the Literature,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Balance of the Bipolar, Neuron, Synaps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문학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집에 게재된 시를 활용한 문학치료나 독서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와 시집이 혹은 시의 문법적 기체가 어떠한 전이의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접속되고 치료적 효과를 불러오는 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의 기체의 유통 경로를 선명하게 인 지할 수 있게 된다면 시인의 구조화 해놓은 치료의 실

*정희원,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접수일자: 2014년 12월 18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4월 7일

Received: 8 December 2014 / Revised: 14 February 2015

Accepted: 7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Literature Therapy Dept. Kyungpook University, Daegu, Gyungbuk

타래와 치료의 울타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치료의 시행도 더욱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집으로 구조화 된 문학치료의 전이적 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성(2014)은 “서사화된 허구적 상상력이 대중의 욕망을 재생산”한다고 말한다. 이 문맥은 “문학적인 전이가 독자의 신경 시스템에서 새로운 정서를 유발하고 문학치료적 전이를 구조화 한다.”고 판단하는 필자의 논지를 지지해준다.

정금미와 이상철(2014)은 논문에서 “사회화용적 전이에 대한 오류”를 말하면서 문화적 전이에 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전이에 오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정신적 혹은 신체적 활동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결론이나 창조를 시행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시집을 보더라도 각자가 자신의 환경과 경험에 의해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감동하게 되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류의 집단무의식에 의해서 공동체적 정서는 상당 부분 공유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공감이란 기제가 발동한다.

이선희(2012)는 “후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후각은 시각, 미각, 청각으로의 전이 예를 극소수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다르게 분석한다. 형용사나 명사, 서술어, 혹은 수식어 등 어느 문법적 구조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이나 어휘 혹은 서사가 인체에 시냅스* 하게 되면 인체에 구조화되어 있는 전기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와 정보는 새로운 정보의 부호화를 이루어 인체에 저장되며 모든 신체 활동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조현수(2009)는 “인문학의 탐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자율적이고 내재적으로 창조해내는 데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체는 모든 자연과 시냅스 한 결과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인체는 궁극적으로 항상 새로운 세계로 시냅스 하기 위해 존재하는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이며 지극히 과학적인 신경 네트워크”라고 인지하고 있다.

윤호병(2000)은 “조창환 시 「볼레로」에서 10개 문장의 주체들은 고유한 역할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지 다른 주체의 역할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고 풀이한다.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한다. 모든 문학작품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며 다른 전이적 기제와 함께 전체상과 전체 의미를 향해 나아가간다고 판단된다. 물론 어떤 양상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성격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집을 통해서 치료적 전이가 구체화되는 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치료적 전이에 대한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구조를 밝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과정을 따랐다.

가. 한 권의 시집에서 문학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는 전이의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인체의 신경적 시스템과 함께 문학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적 기전의 흐름을 알아본다.

나. 시집에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독자의 인지 시스템을 작동시켜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독자가 시집 안에 있는 작품들을 취사선택하여 감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독자에 의해 독자의 지금-여기서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작품이 선택되어 읽혀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 문학적 기승전결의 틀이 시집 전체에서 구현되는 것이 인체의 치료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

* 필자는 본고에서 ‘시냅스’에 대한 표현을 사용한다. 필자(2015)의 논문 <전이에 의한 문학치료 연구>에서 “텍스트와 인체 혹은 인체와 자연(自然) 등의 만남이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냅스 한다’, ‘시냅스 된다’라고 하거나 ‘시냅스’라고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뉴런이 접촉하는 과정을 ‘텍스트와 뉴런이 시냅스 한다’고 표현한다. 이 시냅스(synapse)는 인체 내에서 뉴런의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신경접합부’-엄격하게 표현하면 신경세포는 서로 떨어져 있다-를 의미하는 용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집을 출간하는 작자가 스스로 골라주는 작품 10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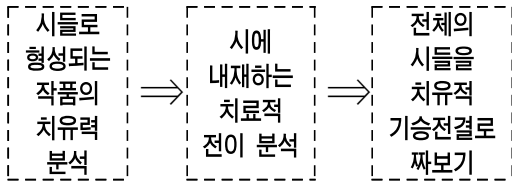


그림 1.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 분석 순서

Fig. 1. Analysis process of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조성화의 시집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인체생리학에 관계된 서적과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인체생리학적 기전과 문학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예측 가능한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도식화 하는 방법을 취했다. 본고는 텍스트 혹은 서사나 문학이 인체에 관여하여 치료가 일어나는 현상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기전과 인문학적 기제가 공유하는 틀을 찾고자 했다. 이것은 인체 시스템과 문학적 서사 구조와의 전이적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기도 했다.

III. 연구결과

인체는 전이적 기승전결의 틀에 의해 외부의 사물과 시냅스 한다. 또한 그런 구조화된 틀로 인간의 기승전결의 삶이 외부로 투영되거나 외부의 생리학적 전이의 기제가 인체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인체는 외부와 소통하면서 자연의 계슈탈트를 향하여 치유되어 간다. 김춘경 외(2010)는 “계슈탈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들을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계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한다고 한다. 즉, 사물을 볼 때 부분과 부분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상으로 파악하는데, 그때 그때 전체상을 계슈탈트라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역시 인체가 기승전결의 틀로 인식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계슈탈트를 이루기 위한 기승전결의 방법과 기제는 각자의 인체적인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외부와 서사적 혹은 문학적 전이의 틀을 공유함으로써 인체는 정리되고 치유되어 가는 것인데 이로 인해 태고부터 인체에 쌓여 전이된 트라우마와 화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다. 전진석 외(2011) 14인이 공역한 <세포학>에서는 인류의 최초의 세포가 전기적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인류의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결국 창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쨌든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이 세포에 전기적인 작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전기적인 작동이 이제 트라우마로 인식되느냐 아니면 인류의 행복의 가치로 인식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과 믿음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펼쳐보고자 한다.

1. 사랑의 완성을 향한 전이의 구조화

문학텍스트를 통한 문학치료적 기제는 기본적으로 “문학텍스트→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체감각 등과의 시냅스→뉴런의 시냅스→인체 시스템 내부에서의 체감각 및 인지활동→텍스트적 부호와 무의식의 부호의 종합→뉴런의 시냅스→정보의 재조합→정보 재생산→새로운 전이 발출→문학텍스트”의 형태로 전이가 항상 이루어지고 전달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조성화의 시집에서 전이하고자 하는 의미의 꽃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이되는 그녀의 시행을 추려내어 알토란처럼 아리게 전이되고 있는 그녀의 깊은 곳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조성화의 詩集에 구조화되는 문학치유의 전이적 흐름도>(Fig 2)는 그녀의 문학적 텍스트에 흐르고 있는 전이적 영상이다. ‘10 or 0’가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그녀의 문학적 서사는 전이의 흐름을 타고 자신에게서 발출하여 타자 혹은 자

연의 전이적 기제를 따라 돌다가 다시 자신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동그라미의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는 동그라미의 모양으로 추상되는 우주를 향해 출력되어 나갔다가 자신에게로 새롭게 입력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녀의 시 창작품 10편을 간추려 그녀의 사랑의 전이의 뼈대를 엮어보면, ‘홍등’ 이 급기야 인체의 무의식의 서사를 만나 담금질 되고 변화될 다음에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 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이는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동체를 만들어 그 홍매와 같은 꽃가지를 엮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학치료 전이의 부호들은 1에서 10으로 회전할수록 증가된다(Table 2). 이는 또한 인체의 전이의 부호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Table 3),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확대하여 분석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치료 전이의 부호들의 증가와 인체의 전이의 부호들의 증가는 비례한다.

시집에 의해 발화되는 치료적 전이의 부호량을 측정하여 보았다. ‘문학치료 전이적 부호의 증가도’ (Table 2)는 완성된 전이의 게슈탈트 전체, 즉 사랑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부호량을 100으로 두었을 때 조성화의 시집에서 흐르는(10편으로 대표작을 선정한) 문학치료적 전이의 부호량을 작품 수와 행간에 놓여있는 긍정과 부정의 기제들로 추정하여 산출한 표이다. 문학치료 전이의 부호량이 100일 때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이때 인체에서는 치료적 호르몬이 분비된다.

삶의 시간에 담긴 전이의 부호량을 측정해 보았다. ‘인체의 전이적 부호의 증가도’ (Table 3)는 완성된 인체의 삶의 전체, 즉 태어남과 생명과 삶과 죽음의 모든 부호량을 100으로 두었을 때 각 삶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이의 부호량을 가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삶의 시간을 비추어 보고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예측해 볼 때 각 인체의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호량은 서로 다르겠지만 오차의 범위를 이 표를 표본으로 한다면 ± 2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표에서 탄생과 죽음의 서사에서 발출되는 전이의

부호는 각각 1로 보았는데 이는 각각의 인체가 탄생과 죽음의 순간의 에너지에 의한 전이적 기제는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삶의 진행 중에서는 다 각각 다른 서사로의 전이가 진행됨으로써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삶의 완성의 부호량을 100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서로의 다른 기제가 인간 삶의 전이적 부호량의 극적인 차이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에서 보면 탄생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의 전이적 기제의 부호량은 각각 1로써 양극성의 기제의 균형을 이룬다. 생의 진행 중에는 죽음의 서사는 배경이 되어있고 삶의 서사가 전경이 되어있으므로 죽음의 부호 1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전이의 부호량 1이 부여된다. 이때 생과 죽음의 부호량은 2이다. 이때가, 죽음의 전이가 부여되는 극한 순간이, 삶과 죽음의 양극성이 균형을 이루는 때이고 삶의 진행의 서사 즉 살아있던 날의 서사들의 전이는 자연에서 인체로 시냅스 되어 온 것이므로 다시 삶과 죽음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는 인체에서 자연으로 시냅스 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완성인 전이의 부호량 100은 우주와 소통하게 되는데 죽음을 완성하는 단계, 아니 삶을 완성하는 단계에는 그 부호량이 100인데 이때 이 안에는 생명의 부호와 죽음의 부호도 함께 존재한다. 시집 안에 있는 문학적 텍스트들에 의한 전이의 부호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호량 1과 죽음의 부호량 1은 우주에 그대로 보존된다. 여기서 생명보존의 법칙과 죽음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

생명의 부호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죽음의 부호가 전경으로 존재하면 죽음의 법이 성립하고 죽음의 부호가 배경으로 숨고 생명의 부호가 전경으로 드러나면 생명의 법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극성의 욕동이다. 생명욕동은 생명씨개*로 보호된다. 그리고 죽음욕동은 죽음의 팬티**로 보존되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 혹은 생명으로 표현되는 모든 부정과 긍정의 기제는 함께 있음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지금-여기에서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전경과 배경이 서로 공유된 지점에서는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에서의 균형 상태는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과 죽음

* 삼상 25:29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씨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라고 언급되어 있다.

** <http://blog.daum.net/born59/8005240>. 박인과의 시 <죽음의 팬티>에는 죽음의 정자들이 존재한다.

의 분기점에서의 균형 상태는 죽음 그 자체이다. 그래서 생명이든 죽음이든 어느 한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전경과 배경의 순서가 바뀌어가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전이적 특성에 기인된다. 결과적으로 사랑의 완성은 죽음을 포용한 생명의 위대한 전이적 가치를 농축시킨 것이다.

2. 시집에 나타난 문학치유적 전이 분석

조성화의 詩集에 나타난 문학치유적 전이에 대한 분석(Table 1)은 그녀가 슬픔과 사랑과 그리움의 뼈대에 대한 전이의 싱싱한 꽃대를 어떻게 진행시키며 전이의 꽃을 피우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녀의 시적 전이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먼저 문학 텍스트를 시작하는데 ‘홍등의 점화’로부터 마음을 점화하기 시작한다. 起에서의 텍스트적 전이의 언어는 ‘지나간 자취 없는 숲’, ‘복새통 기억에서 떠밀려’ 등이다. 그리고 承에서 텍스트와 인체의 시넵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유년의 기억을 타고’, ‘골골 바람 뼈에 사무쳐’ 등이다. 그리고 轉에서는 반전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앞보다 먼저 피어 소란한 홍매’, ‘심장이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수레국화로 다시 피어줄까요’ 등이다. 마지막으로 結의 부분에서는 공감각적 전이의 기제가 발생하는데 ‘벚꽃 피는 그 계절을 기다려/동구 밖까지 나를 마중 나오면/더 바랄 게 없겠다’에서 자아와 타자의 전이적 기제가 어울리고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보고 싶은 날은/배롱나무 꽃물 지천이던/마을 어귀를 벗어나/달개비 꽃 나비 등 타고/함께 걸던 동산에 오릅니다’에서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 배롱나무 꽃물, 옛동산 등의 전이적 기제들이 어울려 새로운 정서를 조각하게 된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모든 창작에는 공감각적 전이의 요소가 내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 이상이 어울리려면 전이의 공감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동그란 발꿈치’로 시작하여 텍스트의 징검다리로서 건너 들어가 전이하는 시들을 다음과 같이 순서적으로 분석해 보자. 그녀의 ‘동그란 발꿈치’로 인헤이동을 시작하는 문학작품은 제일 먼저 텍스트로부터 전이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녀는 건강한 시적 발꿈치 힘줄을 통하여 시어의 산맥을 넘어갈 것이다.

1) 홍등 점화 → 텍스트의 전이

그 겨울의 기억
끝내 보내지 못하고서
바람이 털어낸 건
계절의 굴레였나
한설아래 잎은 푸르러
지나간 자취 없는 숲
어미 잃은 동박새의
앉은 자리 보이거든
홍등을 점화하리라
잊지 않을 약속

-조성화의 시 <동백> 전문

홍등을 점화하는 것은 그녀의 강렬한 전이의 행위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타고 전이되어 온 기억을 끌어 들여 뜨겁게 내재된 자신의 겨울에 불을 켜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다. 일어볼지 않은 그녀의 사랑이 쓸쓸한 겨울의 서정에 홍등을 점화하는 것, 그것은 “끝내 보내지 못하고서/바람이 털어낸 건/계절의 굴레”였음을 ‘잊지 않을 약속’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시쓰기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넘어 타자 즉 ‘어미 잃은 동박새’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의 치유의 문장은 이렇게 “한설 아래 잎은 푸르러/자취 없는 숲”에서 시작이 된다.

2) 서러운 이유 → 감정과의 시넵스

굴뚝에
바람들기라도 했나
자리끼 물 더듬다
새벽부터 눈물 바람인걸
가라앉을 일 없다지만
거둘 이유도 찾지 못해
복새통 기억에서 떠밀려
아무렇게나
지는 해만 바라보며
꾸덕해져갔을
변변찮은 어제 일이 생각나
급기야,
서럽고 말았다

-조성화의 시 <서러운 이유> 전문

홍등을 점화하는 능동적인 사랑의 반대급부로 그녀는 감정과 시냅스 되어 수동적으로 서럽게 되고 만다. '어제 일' 이 그렇게 만들었다. 서러운 만큼 행복하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녀의 뜨거운 사랑만큼 서러운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의 시 <서러운 이유>가 '변변찮은 어제 일' 이다. 그것은 바람 들듯이 눈물이 이유 없이 보채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나가 행복한 일상의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지평을 바라보게 된다.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의 언저리에서 그 시간의 의미를 전이시켜 새로운 시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의 투명함으로 드러나는 트라우마를 전이시키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서럽고 말' 이란 것이 그녀의 시적 포석이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또 타자를 향한, 어쩌면 자신도 타자로서 겪어야 할 그 트라우마의 웅숭깊은 우물의 물결을 헤쳐 서러움의 본체를 발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의 시적 자아는 눈물바람인가. 그것은 그녀가 안고 있는 인류애의 성정에 가지처럼 붙어있는 어떤 부재중이면서 존재하는 것 때문이다. 이 어떤 부재중인 것을 전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빗물 → 뉴런의 전이

빗물이려나
겨우내 아프게 언 땅
얼음 가시 달래가며
햇숨처럼 내려주던
가없는 손길
빈 나무 밑동 타고
기별 없이 스미더니
잠들었던 시간마저
세상 밖으로 불러
넷물따라 흘렸구나
눈물이려나
마음 끝에 매달린
고드름 녹여내는 물줄기
자욱 없이 내려주던
가없는 손길

유년의 기억을 타고
흘리는 한줄기에
사랑 앓이 지난 시간
불긋불긋 살갓 뚫어
마마 꽃으로 피었구나

-조성화의 시 <落水> 전문

텍스트가 어떤 부호들로 인체에 스며들며 서러움의 눈물이 본격적으로 빗물처럼 쏟아지는 현상인 <落水>는 그녀의 눈물이 문장의 숲으로 극하게 이동해 간 증거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눈물로 문장의 숲을 더듬어 '마마 꽃' 으로 피어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을 확대하는 시적 자유로 인하여 그 반대급부인 치유의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때 '마마 꽃' 은 실제의 상황이 아니지만 문학적 허구로 실제의 상황처럼 아픔의 기제를 발출하여 치료적인 기제를 이끌어 오려고 하는 것이다. 문학이 허구이지만 그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인체 내에서는 실제로 뉴런 간의 시냅스가 이루어져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치료의 방법이다. 허구의 문장으로 인하여 치유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인체생리학적 기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마마 꽃' 은 실제적으로는 '마마 꽃' 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병증 등과 같은 아픔이 아닌-그런 병증의 상태를 벗어난- 기쁨과 희열의 치유적 기제를 함의하고 있는 역설적 전이를 담아내는 시어임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 이것이 문학치료적 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깊은 무의식의 층을 움직이기 위해 화자는 '마마 꽃' 을 '눈물' 과 '빗물' 의 행간에 배치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전이적 과정이 이어지면서 문학적 전이가 전이를 받아들이는 타자의 전이적 코드-혹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 전이적 부호가 받아들이는 타자의 뉴런 시스템의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항상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오게 되는 역설적 전이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호사다마라는 말에 이런 과정이 함의되어 있다. 문학치료는 이러한 문장의 기제들을 잘 활용하여 인체의 뉴런들이 활발하게 전이되거나 전이를 일으켜 인체가 치료적 호르몬 등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문장 혹은 텍스트들은 부정적인 병증이나 트라우마를 품고 있는 인체에 대해 치료제가 된

다.

이제 이러한 문장 혹은 텍스트적 치료제가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시냅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4) 엄마 → 기억과의 시냅스

동지선달 손톱 달 베어 물고
다녀간 젖몸살도 잊은 채
젖을 물리는 거룩한 몸짓
돌을 깨고 피던 산고의 꽃 지고
태(胎)를 길러 붙들던 목숨
세상을 향해 내놓았다지
골골 바람 빼에 사무쳐
돌아놓기도 호사인 새벽
여자는 없고 엄마만 있다

-조성화의 시 <거룩한 새벽> 전문

그녀는 젖몸살 앓던 지난밤에 다녀간 달의 비밀을 끄집어낸다. 차라리 손톱을 깨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몸짓이라며 스스로 마음의 문에 사랑의 빗장을 잠시 걸어둔다. 그러다가 산고의 몸짓으로 “태(胎)를 길러 붙들던 목숨”을 세상에 누가 내놓은 것처럼 시어의 변명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시어는 작자 자신이 내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욕망의 전이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전이의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집에 있는 텍스트들은 영구히 그 시집의 문장들 속에서 혹은 문장들의 서사와 자연의 서사 속에서 서로 상징적 텍스트와 의미의 행간을 통하여 사랑의 통로로 전이되고 전이하는 생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술이 그렇듯 그녀의 전이적 키워드에서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다. 이제 그녀는 사랑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녀의 사랑의 빗갈은 자연의 색이다. 그녀가 사모하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그녀만의 독특한 사랑법으로 자연을 끌어들이 사랑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누구나, 타인들은 그녀의 자연에 속해있는 깊은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을 곧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녀의 진실을 찾아가 보기 위해 그녀가 보일 듯 말 듯 했던 시간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오솔길은

그녀가 비밀의 내밀한 그리움의 키워드로 채색해 놓은 오후의 행간에 존재한다. 그 오후의 행간은 바다와 같이 넓고 넓어서 시간의 강물 너머에 있다.

5) 바다의 오후 → 자연과의 시냅스

하늘에 풀어놓은
양 떼들 사이로
산이 고개를 내밀듯
광안대교를 따라
기적 소리 내뿜으며
고된 노동의 오후가
달려 올 때 쯤
메우지도 못할 바다
건너지도 못할 광안리에서
몸 둘 곳 없어
정처 없이 날갯짓하던
길 잃은 물새와
사랑에 빠졌다

-조성화의 시 <바다의 오후> 전문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서 시간의 강물 너머로, 그녀가 바다로 채색해 놓은 오후의 행간에, 우리는 빠져들기 시작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길 잃은 자’가 된다. 그래서 전위차가 일어나는 서사적 시냅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맥의 행간으로 전이의 행간이 작동한다. 트라우마의 현상으로 고된 삶의 은유의 장소인 ‘바다의 오후’가 그녀의 시적 전이의 행간으로 이루어지는 징검다리이다. 이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 ‘홍매’ 같은, 우리는 그녀의 또 다른 사랑을 뜨겁게 엿볼 수 있게 된다.

6) 홍매 → 사랑의 시냅스

남도가 품어 살린
몸살 난 봄
열흘 밤낮을 붉어
천년 고찰의 정기 사르고
분분한 몸짓으로
천공을 향해 오르던가
노스님 공양간 가는 길에

있보다 먼저 피어 소란한

홍매가 그윽하다

-조성화의 시 <통도사1> 전문

‘홍매는 그녀의 정열적인 사랑을 격하게 분출하는 단 하나의 시어이다.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 에 그녀는 사랑을 한다. 왜 하필 ‘발꿈치’ 라는 시어를 마음의 오선에 담았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녀의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간절한 정서를 대변하고 있기에 충분한 언어가 ‘발꿈치’ 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극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사랑’ 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전이의 기제를 품고 있는, 인류가 표현해 내는 최고의 단어이다. 조성화, 그녀가 왜 하필 ‘길 잃은 물새’ 와 사랑에 빠졌는가.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다. 오직 사랑에 눈이 멀어서이다. ‘몸살 난 봄’ 처럼 아프게 사랑하지만 아프지 않다. 그것은 긍정적인 전이의 치유의 효과이다.

7) 이별 연습 → 거리두기

떠나는 순간에는 이유가 없다지만
 묻지 않고 홀로 잇는 법이란
 기억의 밑바닥에 가만히 엮드려
 시간의 강물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빗장 없는 마음이라 성큼 들어와
 마음대로 소통을 멈추던 순간까지
 불 밝히지 못한 마음의 창구에서
 내보내는 연습만 수십 번째
 상실의 슬픔보다 더 큰 미련을
 소금보다 진한 눈물로 흘려보내고
 상처 깊은 가슴에도
 애도 기간은 필요한 법
 길을 건다 함께 들던 곡이 흘러도
 식어버린 커피도 나눠마시던
 그 골목 가로등을 지나칠 때도
 심장이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묻지 않고 홀로 잇을 것이다

-조성화의 시 <묻지 않고 홀로 잇는 법> 전문

이 시에서 그녀의 거리두기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별의 서정이 ‘상처 깊은 가슴’ 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그 이별의 변주곡은 “묻지 않고 홀로 잇는 법” 과 “묻지 않고 홀로 잇을 것이다” 를 핸들 삼아 전이적 비행물체인 시 전체를 조종하면서 마치 이별을 맞이하는 것처럼 시적 장치를 구비해 놓고 이별의 행간에 보이지 않게 사랑을 식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극한 시적 전이의 무의식에 의한 것이다. 사랑과 이별이라는 전이적 코드를 작품 내면에 심어놓고 그 쌍방의 전이적 에너지를 극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문장이 ‘홀로 잇는’ 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녀가 잇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녀의 문장에서 전이되어 오는 에너지를 받아 알게 된다.

그녀의 작품은 이렇게 텍스트적 껍데기가 아닌, 그녀의 사랑의 깊은 곳에서 전이되어 오는 시어들과 타자의 내면의 전이적 코드들이 만나 새롭고 긍정적인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시간의 강물’ 은 그녀의 ‘사랑’ 이다. ‘그녀 자신은 ‘홀로’ 남겨진다고 마음의 연막을 뿌리지만 (사랑을) ‘마주한다’ 는 말에 의해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난다. 홀로 존재하는 자는 마주한다는 서술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마주한다’ 라는 서술어에서 전이되는 어떤 ‘만남’ 의 기체에 의해 독자는 강한 카타르시스로 연결되는 치료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사실 이별하지 않기 위해 이별의 시를 쓴다. 이별이란 전이적 정서를 이미 객관화 시켜버리면 그 이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가기 때문이다. 마음의 전이를 사용하여 미리 이별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self) 속에는 이별의 에너지가 부재하여 ‘이별’ 의 기체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별놀이를 하면서 그녀는 사랑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이별이라는 덧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별이라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문장에 이별의 주사를 꽂고 유유히 즐기며 사랑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사랑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잘 안다. 항상 사랑의 정서로 전이되어 일정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랑은 또 일정한 자리에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데로

흘러 전이되어 갈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때문이다.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그녀가 이미 언급해 놓은 것처럼 사랑은 “시간의 강물” 이기 때문이다. 시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이 한 곳에 머무르면 죽어가듯이 사랑도 한 곳에 머물게 된다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이동했다가 회귀하는 통로를 만들어 사랑의 들숨과 날숨, 혹은 사랑의 전이의 들숨과 날숨을 청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랑의 들숨과 날숨에 의해 그녀와 트러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별 연습을 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정착을 향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호흡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여기에 그녀의 시적 유희의 목표가 있다.

8) 수레국화 → 텍스트와 뉴런 사이의 시냅스

서리를 이기고
줄기 끝에 한 송이를 문 당신
잔국(殘菊)마저 아쉬워마라
노래라도 지어보내면
성숙해오는 계절만큼
그 향기를 더했을까요
뉘엿거리는 서녘하늘에
비꽃처럼 피어나던
당신의 노스텔지어
노오란 물빛에 어리던 날
숨 놓아지던 영원처럼
꿈길을 걸었어요
동쪽 울타리 밑에 씨를 뿌리던
마중나간 제 마음을 잊지말아요
꽃잎 띄워 보내던 찻물 위로
당신 얼굴 다시 어리어 줄까요
이 밤이 지고나면
수레국화로 다시 피어줄까요

-조성화의 시 <국화차처럼 당신
은> 전문

<국화처럼 당신은>이라고 제목을 붙였듯이 이제 그녀가 마음의 속옷 깊이 감추어둔 사랑의 실체인 ‘당신’ 을 꺼내어 든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게슈탈트이

다. 텍스트와 인체의 뉴런이 시냅스한 결과이다. 문학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제가 있다면 그 텍스트적 치유의 기제가 이제 인체 내에서 부호화 되어 치료적 기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는 치유적이기 때문에 ‘당신’ 을 꺼내어 들고 ‘성숙한 계절’ 이라는 시어가 나오고 ‘마중나간 제 마음’, 그리고 ‘당신 얼굴 어리고’, ‘수레국화’ 라는 시어들이나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시어들이 이제 ‘당신’ 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수레국화로 오는 당신’, 이것은 바로 그녀의 텍스트적 전이가 이미 인체의 시스템에 코드화 되어 있는 그리움과 사랑을 일깨워 인체 내에서 사랑의 부호화를 이루고 이미 무의식의 저변에 부호화 되어 있는 그녀의 사랑의 코드와 시냅스한 결과 즉 텍스트적 전이와 인체의 뉴런의 전이가 서로 시냅스한 결과-무의식 및 체감각이 작동하는 상황-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시냅스의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전위가 발생해야 한다. 이 전위는 어떠한 부호 혹은 느낌이나 코드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조건이 주어지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정열적인 사랑을 내뿜는 홍매인 그녀는 또 하나의 ‘동구 밖’ 을 그려나간다. 이미 그녀의 시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에 나오는 ‘마을 어귀’ 와 같은 장소가 ‘동구 밖’ 이다. 그래서 그녀의 시의 징검다리는 하나의 동그라미를 전이시킨다. 이 홍매의 꽃잎 같은 동그라미의 완성이 그녀의 시의 행로이다. 처음 시의 징검돌인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에 나오는 ‘마을 어귀’ 에서 시작하여 <용서>의 시어들 속에서 나타나는 ‘동구 밖’ 으로 동그랗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전이의 동그라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녀는 ‘용서’ 라는 전이적 정서의 징검돌을 하나 더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 라는 문턱을 넘어 사랑으로 전이되고 전이시킨다.

9) 용서 → 타자에게로의 사랑의 전이

스웨터를 꺼내 입으며
또 한 계절의 문턱을 넘는 밤
대쪽 같던 너는 온데간데없고
비바람에 꺾인 아이로 돌아왔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너의 목소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설움을 눌러가며
 너의 마음을 쓰다듬다
 왈각 게워낸 철없는 울음에
 넌 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잠시 질투어린 세상사에
 곡해의 강 앞에서 서성이다
 무심의 죄를 지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무릎 꿇는다

오막살이 살려 가면
 남쪽으로 창을 내면 좋겠고
 혜원이 등하곶길이 멀지 않으면 더 좋
 겠고
 벚꽃 피는 그 계절을 기다려
 동구 밖까지 나를 마중 나오면
 더 바랄게 없겠다
 -조성화의 시 <용서> 전문

그녀의 이 시 <용서>에서는 “스웨터를 꺼내 입으며/또 한 계절의 문턱을 넘는 밤”이라며 또 하나의 징검돌을 넘어오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그것은 이제 은유된 사랑의 결정체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있음을 전이시킨다고 볼 수 있는 시어 '한 계절의 문턱을 넘는'의 행위에 기인한다. 그녀의 전이적 시에 투사된 삶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언어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 로 계절의 징검돌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절의 사랑의 언어인 '너의 목소리' 를 등장시키는데, 이는 그녀의 타자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마치 은혜롭고 지혜로운 동그라미와 같은 사랑의 결정체인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시의 정면에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사랑은 그녀가 그녀의 사랑과 외길의 징검다리에서 조우한 사랑의 필연적인 결정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구 밖'이라는 시어를 제시함으로써 처음의 '마을 어귀'와 수미쌍관의 장소적 구조로 말미암아 그녀의 시적 전이의 흐름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전이적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왔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

는 뒤돌아보는 징검돌에 대한 <용서>의 뒷말이다. 용서는 회복의 언어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언어인 것이다. “넌 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라며 세상에 용서의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의 일면을 그리며 넓게 확장시켜 세상을 용서의 마당으로 불러들이는 그녀의 서정이 알뜰도록 맑고 깊게 뜨겁다.

이제 그녀의 종착지에 다가온다. 백일홍을 바라보며 도착지를 향하여 ‘걸음 폭’ 을 줄여간다. 그녀의 시적 전이의 여정에 마지막 돌을 놓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점을 찍으며 치유의 동그라미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0) 동그란 발꿈치 → 새로운 전이의 타자에게로의 전이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
 배롱나무 꽃물 지친이던
 마을 어귀를 벗어나
 달개비 꽃 나비 등 타고
 함께 걷던 동산에 오릅니다
 가을장마로 불어난
 9월의 계곡 물보다
 더 빠르게 차오르는 숨을
 일일이 눌러가며
 걸음 폭을 줄여 갑니다
 놓쳐서도 아니 되지만
 행여 제가 앞서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앞서 가던 당신,
 뒤돌아보며
 등을 내주던 그 날의 기억이
 시나브로 깊어지던 한낮
 당신이 바람 편에 전한
 이 세상에 없는 말조차
 가슴에 담는 이유는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처럼
 가뭇없이 사라질지언정
 온전한 내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조성화의 시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 전문

그녀의 시적 여정은 백일을 꽃피우는 백일홍, 즉 배롱나무의 붉은 꽃의 영상이 이별의 정서에 시냅스되면서 궁극적인 상징에 이르게 된다. '백일'이라는 완전한 수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사랑의 완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상징은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로서 동그라미의 발꿈치를 완성하는 것인데 그녀의 사랑의 완성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시어는 "온전한 내 것이라/여겨졌기 때문입니다"로 '온전한 내 것' 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신랑신부가 결혼을 할 때 동그란 결혼반지를 주고받는데 사랑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이 시의 징검다리는 극한 사랑의 정서를 전이시키면서 동그란 사랑의 반지의 완성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다시 이별 같은 사랑의 수식어를 이 마지막 작품에서도 덧붙인다.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역시 사랑의 전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은 긴장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전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징검돌인 이 시에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를/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라며 긴장의 전선을 놓지 않는다. 그 긴장의 전선이 사랑이라는 부호들의 전위차를 만들어 사랑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대의 영혼 속에 시냅스 되게 만드는 것이다.

IV. 논의

모든 유기체는 그의 생명현상에 기승전결의 틀을 현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도 유기체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주도 기승전결의 전이적 틀을 가지고 있다. 인체는 우주에 속한 존재로써 우주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체는 바로 우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체가 창조하는 모든 예술 작품은 기승전결의 기제를 통해 나타나고 그러한 작품은 타자에게 또 치유의 기승전결을 전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체가 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언제부터인가 존재해 오

던 어떤 전이적 구조들로 연결되는 질료들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문학창작 행위도 우리는 창조라고 일컬겠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자신의 몸의 틀 어느 세포 혹은 어느 정신적인 기저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전이적 충동에 의해 전경으로 떠올라 그를 캡처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의 전이적인 기제로 자연과 시냅스 하여 자연에 내재하는 게슈탈트적 의미 혹은 질료들을 끌어들이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게슈탈트를 향해 향상되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가 무한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주 안에 있는 질서의 발견과 활용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류는 무한대로 성장할 수는 없는 한계적인 존재일 수 있다.

우주는 지금 팽창을 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다시 소멸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우주의 팽창의 시기에 맞대어 지구의 내부가 요동치고 우주가 찢어지는 힘에 의해 네팔의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다. 우주는 지금 어떤 의미와 어떤 형태의 게슈탈트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에게 치유란 어떤 것인가. 한계 상황의 우주로서 존재하는 인류에게 치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은 지금-여기에서의 삶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 역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한계 상황 안에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치유적 행위이다. 그래서 문학치료적 행위는 인간의 한계 상황 너머에 있는 것으로써 문학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전이적 구조에 의해 채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적 본질로써 지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그것, 즉 한계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우리의 내부에 신이 코드화 해놓은 어떤 부호에 의해 한계 상황 너머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문학치료 전이에 대한 구조화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곳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문학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방향이 되기도 한다.

V. 결론

본고에서는 문학치료에 있어서 발출과 회귀의 일정한 형식으로 구조화 되는 전이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제일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문학이 전이의 기승전결에 의해 치유적인 유희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시집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시들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승전결을 이룰지는 독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10편의 시를 전개한 구도가 작위적일 수는 있지만 이 10편의 시들은 창작집을 출간하는 시인이 직접 고른 작품이다. 독자에 의해 선택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체의 모든 행동이 작위적이라면 이해될 만한 것으로써 창작 또한 작위적이고 독자의 작품 감상 또한 작위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 모두가 작위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각 독자들의 인지 시스템에 의해서 시집의 내용들은 기승전결의 방식을 바꾸어 갈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시집은 기승전결의 치유적 기제로 구체화 되어 있다.

2. 문학적 치유의 구조는 순환을 계속함으로써 인체의 한계 상황 밖의 일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치료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치료의 효과이다.

3. 문학치료 전이적 구조는 '사랑' 이 그 바탕이 되어있고 그 사랑에 눈멀게 하는 것이 전이적 구조화의 효과이다. 사랑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시적 내용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을 함유하였다면 독자에게 안위감과 흥미를 더하며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집을 가지고 타자에게 맞도록 서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때 치료는 구조화 되어 인체에 기승전결의 틀로 담기게 된다.

4. 문학치료의 구조는 긍정과 부정의 서사적 양극성에 의해 전이적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한 문학치료적 전이는 사랑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온도의 이동이 인체에서 시작된 그 곳으로 다시 회귀하여 시작점과 도착 혹은 완결점이 일치하게 된다.

5. 전이의 구조화의 효과는 사랑의 유지에 있다. 이로써 문학치료의 가장 강력한 치유적인 기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전이의 구조화에 의해 자신에게서 발출된 사랑이 이동하고 회귀하는 사랑의 습성을 계속 유지하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6. 문학치료 전이의 구조화는 사랑이 이동했다가 회귀하는 구조이다. 그 전이는 인체의 내부에서 발출하여 외부 세계를 돌다가 다시 인체의 내부로 돌아온다. 그렇게 동그랗게 진행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래서 치료적 구조화는 언어가 태어난 자신의 고향을 찾아오듯이 처음과 끝이 연결된 동그라미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 혹은 치유의 언어는 우주의 형상을 닮아있다. 그래서 문학치료의 전이적 계슈탈트, 즉 문학치료적 전이의 구조는 동그라미로 현상된다.

References

- [1] Young-seong Kim (2014). Media transition feature and change of narrative structure of historical detective narrative from recep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process of making drama of novel 「Painter of Wind」. *Comparative Literature*, 62, 450.
김영성(2014). 수용적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추리 서사의 매체 전이 양상과 담론 구조의 변화-소설 「바람의 화원」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62, 450.
- [2] Chun-kyung Kim et. al (2010).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253. Seoul: Hakjisa.
김춘경 외(2010). 상담의 이론과 실제, 253. 서울: 학지사.
- [3] Ho-byung Yoon (2000). Icon of Poetic Language Poetry Transferred from Music - Chang Whan Cho's Poem "Bolero" Reflecting Maurice Joseph Ravel's Music Bolero. *Comparative Literature*, 25, 121.
윤호병(2000). 아이콘으로서의 시의 언어: 시의 이미지로 轉移된 음악-조창환 시 「볼레로」와 라벨 곡 「볼레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25, 121.
- [4] Sun-hee Lee (2012). Reconsideration of Synesthetical transfer in Chinese sensorial adjectiv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0, 557.
이선희(2012).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재고(再考). *中國語文學*, 60, 557.

- [5] Keum-mi Jeong, Sang-cheol Lee (2014). Pragmatic transfer and politeness. *Humanistic Studies*, 94, 329-341.
정금미, 이상철(2014). 화용적 전이와 공손성. *인문학연구*, 94, 329-341.
- [6] Hyun-soo Cho (2009). Crisis and opportunity of biological development on humanities studies. *Studies in Humanities*, 61, 159.
조현수(2009). 생물학의 발전이 인문학에게 주는 위기와 기회. *인문논총*, 61, 159.
- [7] Bryan Kolb, Wishaw Q l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yun-taek Kim, Myung-seon Kim, Jaejin Kim co-trans., *Basis of the brain and behavior*, 312. Seoul: Sigma Press
Bryan Kolb, Wishaw Q l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공역. *뇌와 행동의 기초*, 312. 서울: 시그마프레스.
- [8] Geoffrey M. Cooper. Robert E. Hausman(2011).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in-seok Jeon and 14 others co-trans. *Cytology*, 4-12. Seoul: World Science.
Geoffrey M. Cooper. Robert E. Hausman(2011).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전진석 외 14인 공역. *세포학*, 4-12. 서울: 월드사이언스.

그림 2. 조성화의 詩集에 구조화 되는 문학치유의 전이적 흐름도

Fig. 2. Transitive flowchart of literatherapy structured in Seong-hwa Jo's book of po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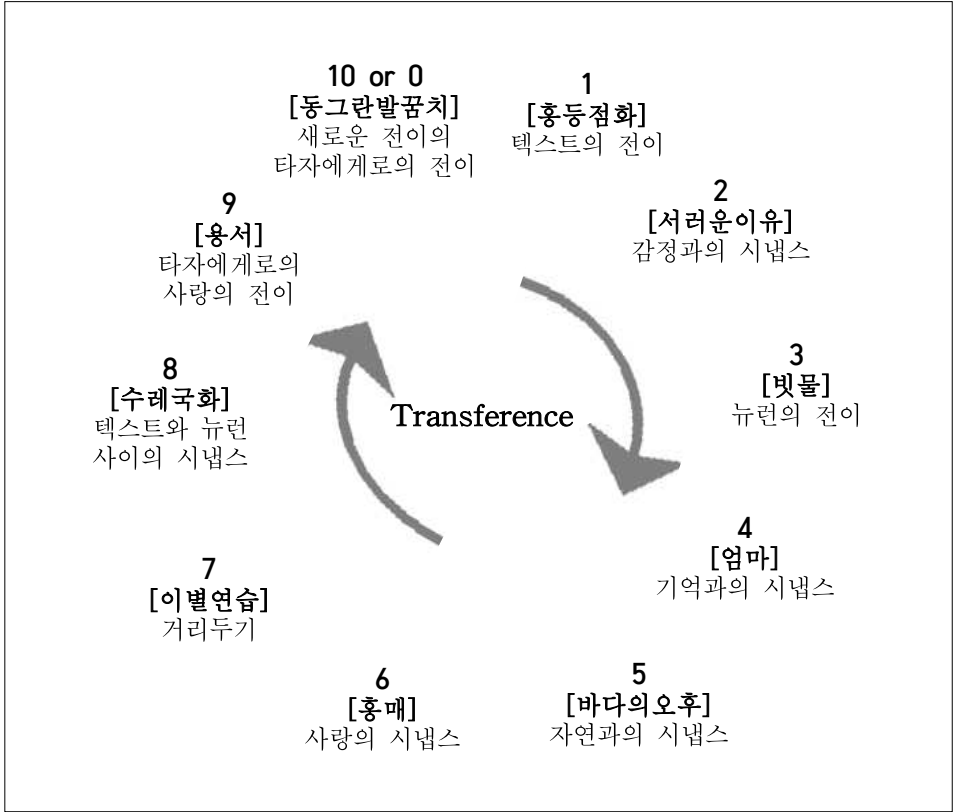


표 1. 조성화의 詩集에 나타난 문학치유적 전이에 대한 분석

Table 1. Analysis of literatherapy structured in Seong-hwa Jo's book of poem

단계	시 창작품	전이의 흐름
起	<동백> <서러운 이유>	문학텍스트시작 <동백> 흥등 점화 <서러운 이유> 눈물 바람 텍스트적 전이의 언어 <동백> 지나간 자취 없는 숲 <서러운 이유> 복새통 기억에서 떠밀려
承	<落水> <거룩한 새벽> <바다의 오후>	텍스트의 인체적 전이와의 시넵스 <落水> 유년의 기억을 타고 <거룩한 새벽> 골골 바람 뻐에 사무쳐 <바다의 오후> 사랑에 빠졌다
轉	<통도사1> <문지 않고 홀로 잇는 법> <국화차처럼 당신은>	반전의 전이 or 역전이 <통도사1> 잎보다 먼저 피어 소란한 흥매 <문지 않고 홀로 잇는 법> 심장이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국화차처럼 당신은> 수레국화로 다시 피어줄까요
結	<용서>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	전이의 시넵스 or 재탄생 <용서> 빗꽃 피는 그 계절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가 보고 싶은 날은> 동그란 그대의 발꿈치

표 2. 문학치료 전이적 부호의 증가도

Table 2. Increase of literatherapy transitive code

起的 부호량	承의 부호량	轉의 부호량	結의 부호량	예측 가능 효과
20	50	80	100	백일홍 (=부호량 100) 타자와의 소통 사랑의 완성 인체에서의 치료적 호르몬 분비
부호량 계산(전이되는 대표적인 기체에 따라 추정)				
흥등점화 + 서러운 이유 =20	起的 부호량 + 빗물 + 엄마 + 바다의 오후 =50	承의 부호량 + 흥매 + 이별연습 + 수레국화 =80	轉의 부호량 + 용서 + 동그란 발꿈치 =100	

표 3. 인체의 전이적 부호의 증가도

Table 3. Increase of human body transitive code

起의 부호량	承의 부호량	轉의 부호량	結의 부호량	예측 가능 효과
1	49	99	100	
부호량 계산(전이되는 대표적인 기전에 따라 추정)				
탄생 (100-99=1) 생명욕동=1	起의 부호량 + 삶의 진행 =49	承의 부호량 + 노화, 질병 =99	轉의 부호량 + 죽음욕동 죽음욕동=1 (99+1=100) 생명욕동+삶+죽음욕동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죽음=생명(=부호량 1) 2. 우주와의 소통, 전이의 완성 3. 인체에서의 생명욕동과 죽음욕동의 양극성의 균형 형성